

믿음의 사람들 VI.

예수님과 친밀감은 우리 내면안에 자신감과 담대함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요한복음 14:11-12]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12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1. 영적원리 -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 실제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리이다.

(1)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인간들이 지닌 한계적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당신이 하시는 실제적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고 말씀 해주셨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권능들이 많이 나타났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통로가 된다.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영역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제의 삶을 인간에게 보인 바 대로 사신 것처럼 구체적이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생각, 경험, 시·공간을 초월한 영역이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믿음의 공간’ 들이 있다. 이 공간은 믿음의 원리로 움직이는 영적인 공간이다.

(2) 예수님의 약속 - 예수님의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실제적 영적원리를 제공한다. (삶은 실제이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말씀 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 보다 큰 일도 하리니”(12절).

하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은 더 이상 추상적이고 신비한 일이 아닌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음을 이제 알아야 한다.

2.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을 풀어내신 곳을 말씀을 통해 보는 일

(1) ‘하나됨’ - 우리가 믿어야 할 진짜 중요한 영적원리

예수님의 권능이 풀어진 곳을 보라. 공통점은 이 땅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혼돈과 어두움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 를 경험했다. 고통에서 기쁨으로, 묶임에서 자유를, 아픔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능이 나타났을까? 이에대한 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그 단서가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11절).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 을 믿는 것이었다. 이 땅에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는 영역에 왜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 되는지 알아야 한다. 내가 바라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원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라는 사실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임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다.

(2)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는 원리

고통은 무엇인가? 창조 전의 상태처럼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상태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기 전, 우주는 이와같은 상태였다. 창조는 이러한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흑암은 빛으로,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만족으로 변한 것이며 이 상태가 창조의 상태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는 이에대한 하늘의 증거가 나타나있다. 열등감으로 자신의 삶에 공허함을 느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경험했으므로 자신의 소유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죄의 어둠으로 가득했던 간음했던 여인과, 십자가 위에 있던 죄인이 영원한 빛 가운데 초청 되었다. 여러 명의 남편문제로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물가의 여인의 삶에 ‘질서’가 임했다. 그 여인은 해결될 수 없었던 혼돈의 목마름 가운데 ‘질서’의 해결함을 경험했다. 혼돈 가운데서 잊고있던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하나’이셨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영적환경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말한다. 존재적인 영역은 자신의 존재가 하늘의 질서로 정렬되며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믿음은 이 존재적인 영역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3) ‘영적문화’의 중요성 -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이다.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한 이벤트적 요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영적문화’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하고 있는 내면의 환경을 말한다. 속사람이 거하고 있는 내면의 공간이 에덴처럼 잘 경작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4) 영적원리 -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

예수님의 권능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일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늘의 권능은 예수님과 하나되는 일을 통해 나타난다.

[요한복음 17:21]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3.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1)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내가 누구와 하나된다는 것은 상대방과 같은 생각과 마음이라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이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같았다. 예수님이 듣는 것과 하나님이 듣는 것이 같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같았다.

‘하나’가 된 공동체는 무엇인가? 모인 구성원이 ‘같은 비전으로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타나는 모양은 다르지만 다양성이 모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하드’의 하나됨이다.

(2) 예수님의 눈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권능이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 대한 관점이다. 이 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 보셨는지가 중요하다. 요한복음 3:16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된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 본 세상은 ‘사랑, 소망, 회복, 기쁨’이었다. 마치 그 눈은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며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아가서에 나오는 겹치지만 아름다운 신부를 향한 신랑의 눈과 같다. 아버지가 소중한 자녀를,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존재적인 눈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다.

왜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능이 나타났을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3:16절 처럼, 고통스러운 이 땅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창조적인 눈에 있었다. 사랑할 수 없는 이 땅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에 있었다. 이것은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눈이 된다.

(3) 육의 눈 - 율법의 눈

육의 눈은 정반대이다. 육의 눈은 부족함을 보는데 익숙하다. 잘못을 보는데 익숙하다. 이 눈은 당시 종교인들이 지녔던 율법의 눈과 같다. 그들은 언제나 잘못을 보는데 익숙했다. 예수님을 바라 보면서도 예수님의 단점과 약점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던 죽음의 눈이었다.

육의 눈은 무엇인가? ‘사랑’이 없는 눈이다. 부족함, 결핍, 약점과 같은 결모습을 본다. 내면을 보지 못한다. 겉사람을 보는데 익숙한 눈이다. 율법의 눈은 언제나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율법은 살리는 눈이 아니라 죽이는 눈이 된다. 율법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눈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할 사랑의 눈인 예수님의 눈을 보게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율법의 눈에는 기대감이 없다. 소망이 없다. 기대감이 없기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4) 기대감의 눈 - 믿음은 ‘예수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에 관한 것이다.

창조주 아버지의 눈이 믿음의 눈이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은 구체적으로 기대감의 눈이다.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은 언제나 자녀들의 상태보다 더 큰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없고 부족해 보이는 것도, 아버지의 눈에는 가치있고 귀중하게 보인다. 이 마음은 결국 ‘기대감’으로 발전한다. 비전의 눈이며 꿈으로 가득한 소망의 눈이다.

(5) 믿음이란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귀, 예수님의 입’을 갖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보며, 온전하게 듣고, 그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 순간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만나는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대감’은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는 영적인 장소가 된다. 그리고 결국 미래에 그 일을 실체가 되게 한다.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4.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역

(1) 자신감과 격려

예수님의 눈 앞에서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눈 앞에는 어떤 정죄함, 참소함, 수치심도 없다. 그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는 사랑으로 가득하다. 그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음을 명심하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격려가 예수님의 사역 안에 있었음을 명심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어야 한다. 율법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하지만, 사랑은 실패를 이길 수 있게 한다.

- (2) 예수님과 친밀함이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는 실제적 능력의 근원이 된다.
- 담대함과 자신감이 우리 내면에 열매를 맺게 한다.

[요한복음 17:23-24]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4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는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이들도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존재들임을 증명하신다. 예수님과 하나되는 일은 우리의 내면 안에 '담대함과 자신감'의 열매를 맺으며, 이것은 어떤 불가능한 환경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됨을 명심하라.

(3) 적용

* 긍정적 태도를 잃지 말라. 기대감의 마음을 잃지 말라.

- 긍정과 기대감으로 내면의 믿음의 발을 기경하라. 결국 기경된 믿음의 언어가 기적을 만들 것이다.
(믿음의 언어의 중요성)